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06.04 —— 2026.06.03

1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1

2025.06.04. —— 2026.06.03.



2025.06.04.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2026.03.01.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2025.12.30.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



2025.08.15.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2025.06.27.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



2025.09.11.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25.12.29. 대한민국 대통령 1,330일 만의 청와대 출근



2026.01.01.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모든 권력은



2026.04.02.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2025.08.15. 대통령 국민임명식



2025.12.03.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





2026.01.02. 청와대 시무식



2025.06.13. 6개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



2025.06.20.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 및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2025.08.21.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 접견


SEPTEMBER 25, 2025
NYSE



2025.09.25. 뉴욕증권거래소 타종 및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02.20.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







2026.03.13. '충북의 마음을 듣다' 충북 타운홀 미팅



2026.04.27.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딥마인드 최고경영자 접견



2026.03.26.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현장점검



2026.05.13. HD현대중공업 야드 시찰



2025.06.13. 기본소득 실시지역 현황 점검



2025.08.01.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2026.05.08. 남대문시장 방문



2025.06.20. 울산 언양알프스시장 방문



2026.02.27.
새만금 로봇·수소·AI시티 투자협약식



2026.01.30.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함께 여
르네상스
르네상



2025.09.12. '강원의 마음을 듣다' 강원 타운홀 미팅



2025.06.12. 이태원 참사 현장 점검



2025.06.30. '문화 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간담회



2025.07.21. 집중호우 피해 경남 산청군 현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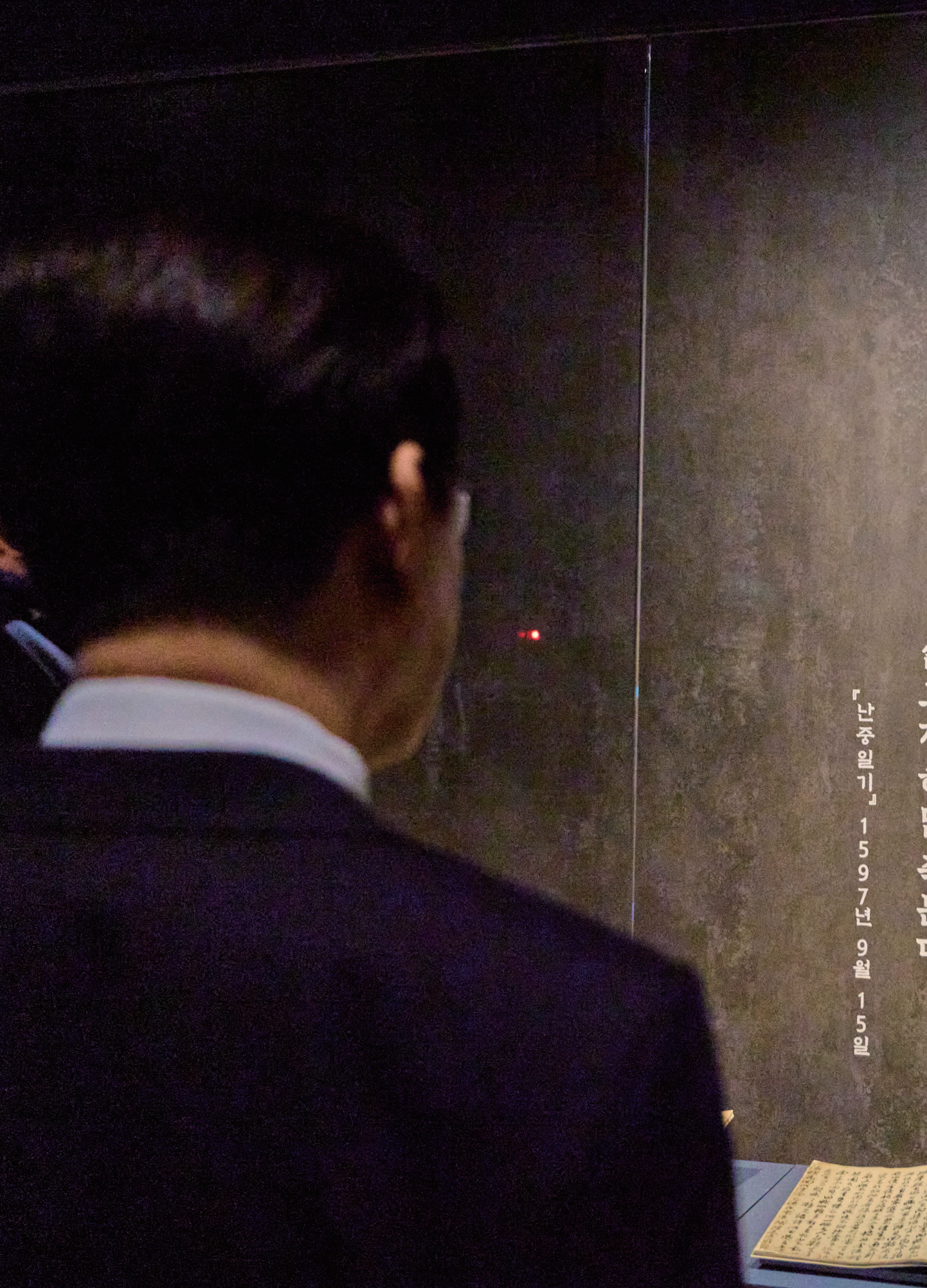
2025.10.17.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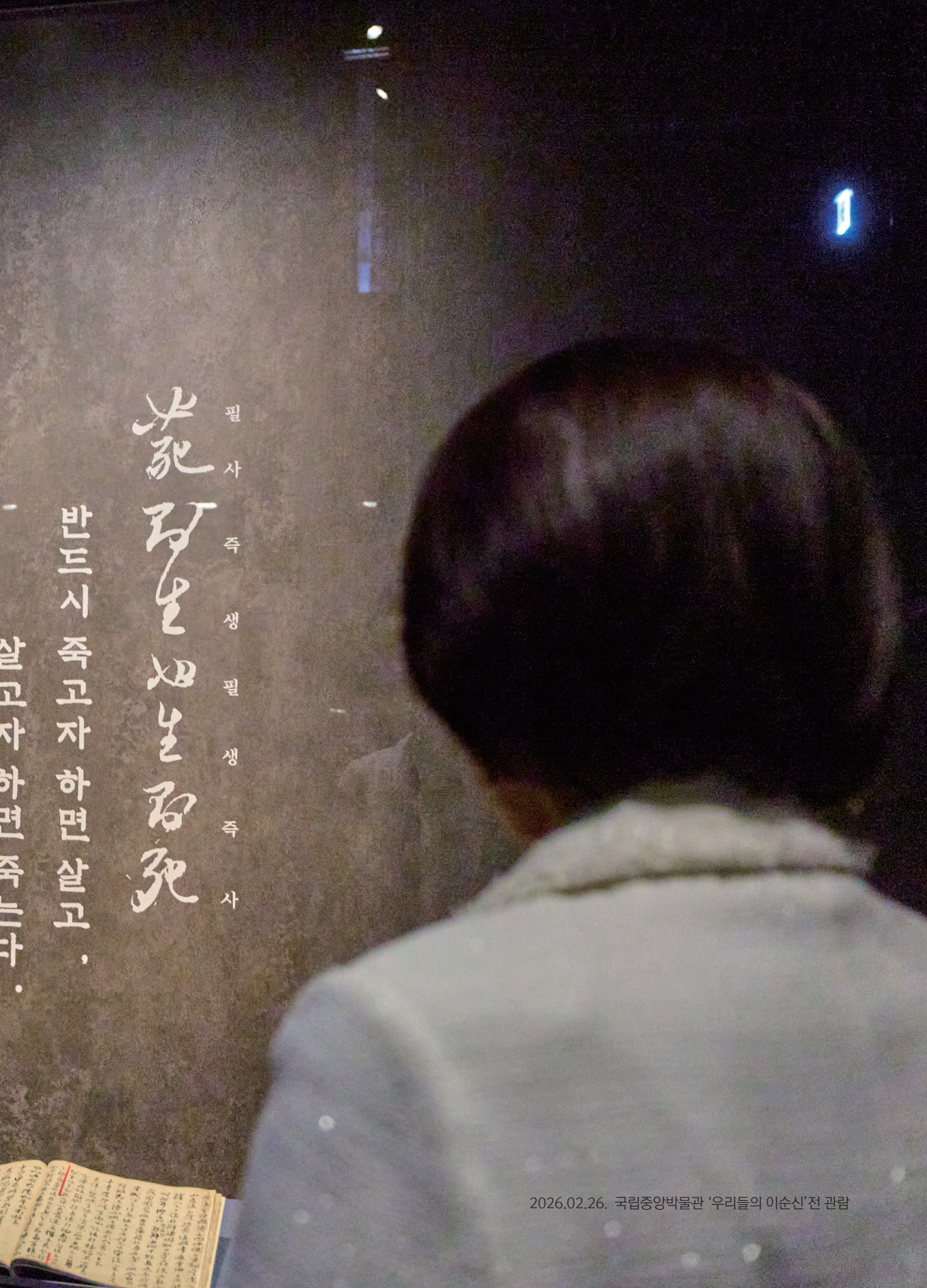


2025.09.19.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2025.10.01.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


『난중일기』 1597년 9월 15일



2026.02.26.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들의 이순신'전 관람



2025.06.25.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2026.02.26.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들의 이순신'전 관람



2025.08.20. 아리랑국제방송 'K-팝 미래' 담론 특집 프로그램 출연





2026.02.11. 충주시 그냥드림 방문



2026.03.20.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2026.04.16.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2026.03.13. 청주 이은학교 현장 방문





2026.05.05.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



2025.06.13. 경기 연천 상승비룡부대 방문



2025.10.29. 한미 정상회담





2025.08.27. 미국 한화 필리조선소 방문



2025.11.01. 2025 APEC 정상회의 기념촬영



2026.03.04. 필리핀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2025.09.24.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천년미소관





위 2025.10.29. 한미 정상회담　**아래** 2025.11.0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국빈방한 공식 환영식





2026.04.20. 인도 간디추모공원 공동식수



2026.03.25.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2026.05.19.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06.04. —— 2026.06.03.

발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첫 연설문집이 나왔습니다. 이 연설문집에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26년 6월 3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직접 행한 주요 연설과 SNS 메시지들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주 오래 묻고 확인합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떠올리고, 우리가 하려는 일이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하는 일인지 거듭 질문합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의 걱정, 청년의 고민, 기업인의 어려움을 비롯한 각각의 절박함은 늘 대통령의 마음에 깊게, 오래 남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은 언제나 대통령의 생각을 움직이고, 정책을 조정하는 힘이 되며, 다시 대통령의 굳건한 약속이 되어 국민 앞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기에 발간을 앞두고 이 책에 담긴 연설들을 다시 읽으며 떠오른 것은 단상 앞에 선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대한민국의 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말이 된 국민들과의 만남들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준비했던 시간. 또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선택했던 순간들이 대통령의 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며, 더 나은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이 계셨기에 이 모든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견디는 힘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이정표도 언제나 국민이셨다는 것을 재차 깨닫습니다.

대통령의 말의 기록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온 약속의 기록. 이제 이 약속들이 국민의 삶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갈 날들이 기대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다시 이 책을 펼쳤을 때, 대통령의 연설에 담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대체불가 대한민국"이기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대통령비서실장 강 훈 식

차 례

2025년 6월

2025.06.04.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062

2025.06.06.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070

2025.06.26.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074

2025년 7월

2025.07.03.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082

2025.07.12. SNS |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087

2025.07.13.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088

2025.07.16. SNS |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095

2025.07.17. SNS | 제헌 77주년 097

2025.07.25. SNS | 산재 사망 사고 현장 방문 098

2025.07.29. SNS |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100

2025.07.31. SNS | 한미 관세협상 타결 101

2025년 8월

2025.08.01.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 발언 104

2025.08.05. SNS |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107

2025.08.05. SNS |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 108

2025.08.12. SNS |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원 109

2025.08.13. SNS |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110

2025.08.14. SNS |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112

2025.08.15.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114

2025.08.15. 대통령 국민임명식 122

2025.08.18.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126

2025.08.20. SNS | 이태원 참사 소방대원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28

2025.08.26.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130

2025년 9월

2025.09.01. SNS |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 138

2025.09.04. SNS |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139

2025.09.11. 취임 100일 기자회견 141

2025.09.19. SNS | 9·19평양공동선언 7주년 144

2025.09.19. SNS | 청년 소통·공감 콘서트 146

2025.09.24.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148

2025년 10월

2025.10.01. 제77주년 국군의 날 158

2025.10.02. SNS | 노인의 날 164

2025.10.02. SNS | 국제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165

2025.10.07. SNS |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위해 167

2025.10.09. SNS | 위대한 한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원천입니다 168

2025.10.17.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기념사 170

2025.10.19. SNS |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173

2025.10.21.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174

2025.10.26. SNS | 어느덧 11년이 흘렀습니다 179

2025.10.29. SNS |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180

2025.10.31.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개회사 182

2025년 11월

2025.11.01.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188

2025.11.01. SNS |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191

2025.11.04.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193

2025.11.09. SNS | 제63주년 소방의 날 202

2025.11.10. SNS |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203
2025.11.12. SNS |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204
2025.11.13. SNS | 꺼지지 않는 불꽃,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206
2025.11.22. G20 정상회의 제1세션 발언 208
2025.11.22. G20 정상회의 제2세션 발언 211
2025.11.23. G20 정상회의 제3세션 발언 215
2025.11.24. SNS | 배드민턴 황제 안세영 선수의 시즌 10승을 축하합니다 217
2025.11.24. SNS |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218
2025.11.25. SNS |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20
2025.11.27. SNS | 자랑스러운 우리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21
2025.11.28. SNS |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223

2025년 12월

2025.12.03.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226
2025.12.08. SNS | 앞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230
2025.12.10. SNS |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 ‘김대중’이 걸어온 길 위에서 231
2025.12.16. SNS |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33
2025.12.17. SNS |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34

2025.12.21. SNS | 대한민국이 세계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236
2025.12.22. SNS |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238
2025.12.24. SNS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241
2025.12.25. SNS |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리며 242
2025.12.29. SNS | 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244

2026년 01월

2026.01.01. 2026 신년사 248
2026.01.05. SNS | '국민배우' 안성기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55
2026.01.21. 2026 신년 기자회견 256
2026.01.25. SNS |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62

2026년 02월

2026.02.02. SNS | K-팝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266
2026.02.05. SNS | 미래 과학자들이 과감히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267
2026.02.06.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기념사 270

2026.02.13. SNS |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그리고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합니다 273
2026.02.19. SNS | 쇼트트랙 강국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275
2026.02.20.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276

2026년 03월

2026.03.01.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282
2026.03.07. SNS |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천만 관객 돌파 289
2026.03.08. SNS |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290
2026.03.08. SNS |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92
2026.03.15.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사 293
2026.03.15. SNS | 다섯 번째 메달을 거머쥔 김윤지 선수, 축하합니다 297
2026.03.16. SNS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2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98
2026.03.17.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 300
2026.03.25.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축사 303
2026.03.25. SNS |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306
2026.03.27.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307

2026.03.27. SNS |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한강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311
2026.03.29. SNS | 고인의 숭고한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312
2026.03.30. SNS |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313

2026년 04월

2026.04.02.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316
2026.04.03. SNS |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323
2026.04.05. SNS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325
2026.04.0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 326
2026.04.05. SNS | 제81회 식목일을 맞이하며 329
2026.04.10. SNS | 복합위기 시대, 대화와 협력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열쇠입니다 330
2026.04.15. SNS | 규제합리화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331
2026.04.16.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332
2026.04.19.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사 334
2026.04.20. SNS |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 338
2026.04.23. SNS | 하노이의 저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340
2026.04.28.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 축사 342
2026.04.28. SNS |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추모를 넘어 책임과 다짐의 시간으로 345

2026년 05월

2026.05.01. 2026 노동절 기념사 348

2026.05.05. SNS |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353

2026.05.08.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축사 355

2026.05.12. SNS | 엄중히 경고합니다 358

2026.05.14. SNS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359

2026.05.15. SNS | 현재를 가르치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위대한 선생님들께 360

2026.05.18.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362

2026.05.20. SNS | 故 이종욱 박사님 서거 20주기를 맞아 367

2026.05.21. SNS |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368

2026.05.23. SNS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사 370

2026.05.24. SNS |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373

2026.05.24.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 374

2026.05.24.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태고종) 축사 376

2026.05.26. SNS |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378

2026.05.27.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사 379

2026.05.28. SNS | 우원식 의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384

2026.05.30. SNS | 꼭 투표합시다 385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 06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2025.06.0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빛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합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힘들 땀과 눈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로(針路)로 삼아 험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전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세력만이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5.06.04.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영토를 확장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빛의 혁명은 내란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국민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

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입니다.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습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습니다.

셋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균형발전, 공정성장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습니다. 일제의 폭압에 3·1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세상을 열어가는 국민 여러분이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2025.06.0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일흔 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



2025.06.06.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었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합시다.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2025.06.2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

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

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서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2025.06.26.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부터 12·3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0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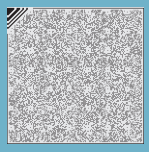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 07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2025.07.0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장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2025.07.03. 취임 30일 기자회견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

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

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5.07.12.

오랜 세월에 걸쳐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나, 비로소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온 국민과 함께 마음 깊이 환영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등재를 결정하면서 한반도에 거주했던 선사인들이 고래와 같은 희소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반구천을 따라 가장 깊게 새겨진 것은 수천 년 전 문자가 없어도 이야기를 남기고, 공유하고자 했던 한반도 사람들의 열망일 것입니다. 그 표현의 열망이 이 땅에 계속해서 전해져 지금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빛나는 성취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얼마든지 그 가치가 확장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우리 땅의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이자 세계적인 관광자원입니다. 유산의 보존·관리 수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

2025.07.13.

전 세계에서 오신 우리 정치학회 학자 여러분, 역동적인 민주주의 현장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뜻깊은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류가 처한 공통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1997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전 세계가 마주한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과연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대에 걸맞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정치는 더 나은 삶의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제대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이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에 벌어졌던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총칼을 든 친위 군사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중간 어딘가쯤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12·3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헛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왔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습니다.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벼락 밑에서도 기어코 빛을 찾아 피어나는 들꽃들처럼 12·3내란의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가 가진 진정한 힘과 희망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과 용기를 선보이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기필코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와 총칼에 맞섰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 의결에 나서도록 독려했습니다. 일선의 군 장병들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며 존엄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내란 세력은 국회의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에는 단 하나의 작은 흠집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은 내란의 어둠에 맞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빛의 혁명'을 해냈습니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증명됩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당했던 고비 고비마다 결집한 시민의 힘과 집단지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던 민주주의를 다시 날개 치며 솟구쳐 오르게 한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국민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의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직접 보여준 오색빛 K-민주주의가 길을 찾는 세계의 민주시민들에게 등불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해낸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가리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 각자도생의 사회 질서가 유발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새롭게 놓을 시간입니다.

갈등보다 대화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대립보다는 화해를, 비난보다는 협력을, 혐오보다 서로를 살피고 돌보는 상생의 가치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란 일각에

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간섭받지 않을 자유, 제약받지 않을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목격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 이때의 '자유'란 곧 '경제'입니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이고,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가정에서, 휴게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내야 하는 일터에서, 어디에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한 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나라에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입니다.

우리 옛말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모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저마다 꿈을 꿀 수 있는 창의와 도전, 희망이 넘칠 나라를 만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치체제임을 끊임없이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 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께서 이미 우리가 나아갈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광장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응원봉이 경쾌한 'K-팝' 떼창으로 어우러지며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습니다. 찬연한 빛으로 부활한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연대와 상생, 그리고 배려의 에너지를 모두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냈습니다.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의 핫팩·난방버스 연대, 금남로의 주먹밥을 계승한 여의도와 한남동의 '선결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며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바로잡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고도화된 집단지성의 역량이 민주공화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더욱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난제를 해결할 숙의민주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저마다의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치열하게 소통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어둠과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도래한 AI 혁명이 디지털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이 되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소수의 기술 독점이 민주주의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면 오히려 한발 앞서 기회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인공지능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며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첫걸음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험난한 첫걸음입니다. 현상에 대한 분석도, 그 대안도 다양하고 또 생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굴곡진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가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동학혁명을 지나 3·1운동, 4·19와 5·18,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범한 민초들이,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역사,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지난 겨울밤 우리를 다시 차가운 거리로 이끌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역사적 임무를 기꺼이 우리가 자임할 때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 단계씩 발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이끌 새로운 역사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길에,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 K-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와 정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새겨진 자유와 평등, 연대의 민주주의를 후대에 더 빛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성큼성큼 전진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세계적인 석학들의 지혜와 의견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창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현장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2025.07.16.

4·16세월호 참사, 10·29이태원 참사, 7·15오송지하차도 참사,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렸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손 내밀 수 있어야 할 국가는 너무 많은 순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됐고, 피할 수 있었던 비극 앞에 무력했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흡했던 대응과 변명,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 전부 철저히 검토하고, 가능한 영역에서 정부가 할 수 있



2025.07.16.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는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04. 159. 14. 179.

저마다의 이름과 꿈을 안고 스러져 간 656개의 우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SNS

제헌 77주년

2025.07.17.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갔습니다.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습니다.

SNS

산재 사망 사고 현장 방문

2025.07.25.

지난 5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노동자 출신이자 산재 피해자로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장에서 희생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불가피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고가 모두 심야 시간대에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 12시간씩 맞교대하며 밤낮이 바뀌어 일할 경우 피로에 시달리고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는 현실은 우리 산업 현장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물론 업종의 특수성도 이해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노동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현장 안전 설비와 시스템이 평상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업 경영진께도 이윤 창출만큼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기록하는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노동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SNS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금메달

2025.07.29.

독일에서 열린 2025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육상이 유니버시아드를 비롯한 세계 종합대회 릴레이 종목에서 우승한 건 처음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수없이 흘린 땀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 마침내 빛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끈끈한 팀워크와 굳건한 의지로 펼쳐낸 역전의 드라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2013년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이후 멈춰 있던 남자 400m 계주가 다시금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희망도 되살려 주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준 기록을 충족해 오는 9월 도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고 당당히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꾸준히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육상 대표팀이 거둔 값진 금메달의 영광이 오늘 하루 국민 여러분께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열정과 투지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SNS

한미 관세협상 타결

2025.07.31.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습니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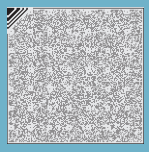
특히,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 08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 발언

2025.08.01.

전국에서 오신 광역 시·도지사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도지사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많이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서 국정의 효율성을 매우 많이 개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할 일도 많지만, 또 지방의 각 특색에 따라서 개성 있게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아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한데, 오늘은 분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채택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부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됐고, 이게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성장발전전략이었는데, 지금은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습니다.



2025.08.01.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 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습니다.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사실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면 저

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와 관련해서는 이게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지역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고 계시지만 지금보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SNS

수능 D-100, 충분히 자랑스러운 여러분께

2025.08.05.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이 누군가에겐 무척 길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짧게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온 여러분 모두가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겠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잡고 끝내 다시 일어선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통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한 뼘 더 성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분이 마주한 모든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효능감으로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지나온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든든한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정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00일, 끝까지 자신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 수능 준비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께는 격려와 축하를 함께 전합니다. 지금의 노력이 여러분의 꿈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SNS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

2025.08.05.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십니다.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립니다.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생당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SNS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원

2025.08.12.

2025년 제2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을 전합니다.

누군가는 긴 세월 품었던 배움의 꿈을 이어가고자, 또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고자 이 자리까지 오셨겠지요.

각자의 사정과 환경은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온 여러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펼치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지켜온 의지와 용기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넓은 배움의 길, 더 큰 세상 속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SNS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2025.08.13.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지난 두 달간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던 민생과 정치, 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동시에 국정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 실현의 토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파른 산길을 구르듯 숨 가쁘게 달려온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마무리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를 재정비하고, 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이번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닌, 국민과 함께 다듬어갈 초안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덕에 모든 어려움을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께 의지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애써주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



2025.08.13.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

니다. ‘모두의 광장’을 통해 무려 181만 건이 넘는 귀한 의견을 보내주시며 국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NS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이 꺼지지 않도록

2025.08.14.

34년 전 오늘은 故 김학순 할머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해 주신 날입니다. 전시 성폭력 참상을 알린 고발을 넘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준엄한 호소였습니다.

할머님의 용기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양심을 일깨웠고,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한 역사의 어두움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이었고, 진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숭고한 용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지만,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아직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바로 서지 않는 한 광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권이 상식이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나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진실과 용기의 등불이 되어 주신 할머님들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곁에 계신 이용수 할머니, 박필근 할머니, 강일출 할머니, 김경애 할머니를 포함한 여섯 분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2025.08.15.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 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

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질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2025.08.15.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판문점선언, 9·19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

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200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 대전환, 기후 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갈고 닦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이 이룬 민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국민임명식

2025.08.15.

빼앗긴 국민주권의 빛을 되찾은 80주년 광복절,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또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겨울 광장을 뜨겁게 수놓은 오색빛 외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5,200만 국민 저마다의 희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각의 꿈이 미래를 향해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절박한 공통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희망의 함성과 함께 태어난 '광복둥이'가 조국의 성장을 온몸으로 지켜본 팔십 어르신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0년 전쟁의 포화를 겪으며 '흥남 철수 수송선'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 어느새 일흔네 살의 백발이 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독립과 호국의 전장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여러분!

이역만리 타국에서 흘린 땀으로 근대화를 일궈낸 여러분 덕분에 세계 10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2025.08.15. 대통령 국민임명식

4·19혁명부터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나라에 국난이 닥칠 때마다 가장 밝은 것을 손에 쥔 채 어둠을 물리친 여러분이 있었기에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강산이 여덟 번 바뀌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난과 시련이 좀처럼 멈출 줄 몰랐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나 굳건히 일어났습니다. 과거를 지켜냈고, 현재를 구했으며, 미래를 열어 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피, 땀, 눈물이 닿았던 그 많은 자리들마다 평화와 인권, 자유와 연대의 새 생명들이 솟아났고 칠흑 같은 절망과 위기를 변화와 기회의 역사로 바꿔냈습니다. 위대한 80년 현대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 '국민주권정부'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의 중심에 언제나 국력의 원천인 국민을 둘 것입니다.

국민의 역량이 곧 나라의 역량입니다. 국민이 잘사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사는 길입니다.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일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만큼 국력이 커지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상상하고 꿈꿀 그 모든 미래의 중심에 위대한 대한국민이 계실 것입니다.

정든 학교가 없어지지 않겠으면 좋겠다는 아이들의 바람, 우리 마을이 아이들로 넘쳐나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소망, 이 모든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무겁게 받아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있어선 안된다는 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씻어내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갈망하던 선열들의 벅찬 꿈은, 이 자리에 오신 문화인들과 스포츠 꿈나무들의 땀과 노력이 있기에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성장하여 세계 시장을 무대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오직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역경은 전례 없이 험난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겨낸 수많은 역경들에 비하면 결코 이겨내지 못할 난관이 아닙니다. 하나 된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러운 조국을 더 빛나게 반드시 물려줍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부터 임명받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껏 성큼성큼 걸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 다시 세워 주신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임명된 것이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자랑스러움을 국민의 기쁨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려 드리겠습니다.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사

2025.08.18.

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 한 점에도 그리움이 스며드는 그 이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추모합니다.

군부독재의 군홧발 아래 국민의 삶이 짓밟혔던 시절 김대중은 '희망의 이름'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견뎌 끝내 봄을 꽃피울 수 있다는 '소망의 이름'이었고, 모진 고난 앞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면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기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벽을 뚫고, 머나먼 망명의 길을 뛰어넘어 거목(巨木)의 뿌리는 더 깊어졌고, 가지는 더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떠나시고 한동안 우리를 지배한 것은 '김대중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슬픔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운 16년의 세월을 지나 우리 모두 어느덧 '김대중 없는 김대중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던 대통령님의 말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침반으로 거듭나 국민주권이 흔들렸던 역사적 순간마다 우리를 일깨웠습니다. 대통령님이 남기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은 혼돈 속에 번영의 새길을 찾아내야 할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이들의 것이며, 희망은 실천하는 이들의 몫입니다.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IMF 국난 속에서 IT 강국의 초석을 놓았고, 복지국가와 문화 강국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숱한 역경에도 언제나 한발 앞서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온갖 음해를 이겨내며 한반도의 봄을 앞당겼고, 끝내 조국과 민족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

김대중 대통령께선 끝난 줄 알았던 그 길의 끝에서 스스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습니다. 때로 지칠 때마다, 때로 멈추고 싶을 때마다 거인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습니다.

김대중이 키워낸 수많은 '행동하는 양심'들을 믿고 흔들림 없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는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등불로 함께해 주십시오.

SNS

이태원 참사 소방대원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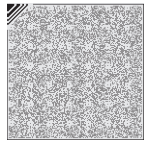
2025.08.20.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인해 열두 차례에 걸쳐 심리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무거운 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고통과 싸우며 이제껏 버텨온 젊은 청년을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국가적·집단적 트라우마를 온전히 마주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과 심리 지원체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치부해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트라우마는 더 깊어지고 장기화되어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며, 힘을 모아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연대와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재난, 대형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진상 규명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성찰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법적 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도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2025.08.26.

존경하는 우리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귀빈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이 휴가철에 이렇게 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국제정세와 역내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이자 한미동맹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준 CSIS에서 오늘 연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최첨단기술 강국'인 동시에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문화콘텐츠의 표준을 다시 쓰고 있는 문화 강국(Powerhouse)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룬 빛나는 성취의 중심에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우리 국민의 역량과 의지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여를 빼놓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결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또 서슬 퍼런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내준 지지와 협력은 언제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70년 세월만큼 견고했던 한미 양국의 연대는 지난해 12월 3일 벌어진 친위 군사쿠데타의 극복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진압한 그 힘은 전 세계에 '오색 빛깔' K-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선보인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노력에 변함없는 신뢰와 연대, 그리고 일관된 지지를 보여주신 미국 조야의 여러분 덕분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했고, 그만큼 동맹을 더욱 돈독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도 앞으로 다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은 그간 수많은 도전들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앞에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6월 3일 대선 직후 CSIS에서 발표한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Frying Pan to Fire)〉라는 보고서의 제목에 대한민국이 처한 엄중한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밀착, 우크라이나와 중동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에 더해 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이 전례 없는 도전과 변화에 맞서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새롭게 도약할 발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저는 유연한 사고와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시대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최적의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에 번영과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여러 전장에서 전우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안보 동맹'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성장했던 대한민국이 어

느새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이 되어 미국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동맹'입니다.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익 중심의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입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은 남북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한미



2025.08.26.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을 괴롭힌 대남 확성기 방송을 곧바로 중단했습니다. 수면제로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받던 접경지 주민들은 이제 맘 놓고 잠을 잘 수 있다며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그리고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 확신합니다.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시대, 안보와 경제는 결코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동맹이 양국 국민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타결한 관세 합의는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할 마중물로 작동할 것입니다.

세계 1위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의 K-조선이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며 양국이 공동번영할 새로운 역사적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한미 양국은 첨단기술 동맹으로 당당히 응전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협력으로 호혜적 성장을 일궈가는 미래, 결코 꿈 같은 장밋빛 미래가 아닙니다. 양국 국민이 한미동맹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건너 대륙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최근 연간 3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와 록·재즈 음악은 오랫동안 한국 청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방영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음악을 즐기며 이미 한미 양국 청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피자가 미국만의 음식이 아닌 것처럼 김밥과 라면도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닙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소녀가 스스로 김밥을 싸 먹는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도 하고, 한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이 햄버거의 본고장인 미국에 1호점을 오픈해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번영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입니다. 저는 이번 방미에 앞서 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1기 때부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하며, 인·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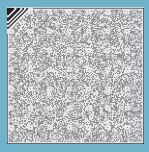
내외 귀빈 여러분!

전장의 참호와 총성에서 시작되어 조선, AI, 반도체, 퀀텀, 원자력의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70여 년의 시간이 창조한 위대한 동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 위에 우뚝 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은 양국 국민을 위한 실용과 국익의 결정체로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욱 위대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 09

SNS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갑시다

2025.09.01.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양성평등주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구조적인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잘못된 인식은 바로잡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혐오와 차별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SNS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2025.09.04.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대통령실로 보내온 세 명의 어린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업무상 어린이를 접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터라 오늘의 만남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대북·대남 방송이 중단되어 행복해졌다는 친구, 부모님과 함께 계엄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친구, 그리고 호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편지를 전달해준 친구까지 모두 각자의 소중한 경험을 진솔히 들려주었습니다.

난중일기, 과학 만화, 역사 만화 등 평소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도서를 선물하며,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큰 꿈을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7세, 9세, 13세.

이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렙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순수한 소망이 담긴 이 편지의 내용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오늘 만남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5.09.04. 대통령 내외 어린이 초청행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25.09.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우리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2025.09.11.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 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들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9·19평양공동선언 7주년

2025.09.19.

오늘은 9·19평양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남북은 평양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길을 걷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한 군사합의를 채택했습니다.

군사합의가 이행되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낮아지고 한반도에는 모처럼 평화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습니다.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 토대입니다.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됩니다. 제가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입니다.

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 번 깨진 신뢰가 금세 회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뢰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9·19남북군사합의 정신 복원을 위해,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다시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 설치는 일 없도록, 다시는 우리 경제가 군사적 대결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SNS

청년 소통·공감 콘서트

2025.09.19.

청년들을 만나는 날이면 언제나 설렘과 송구함을 함께 준비합니다. 푸르른 열정을 한가득 담아간 적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 적도 있지요. 오늘의 '청년 소통·공감 콘서트'도 저에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시절을 겪었지만, 고도성장기 대한민국에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균형도 격차도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가 올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기회 부족입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해도 탈락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극한 경쟁으로 내몰리지 않는 나라여야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 자신의 노력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2025.09.19.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국민이 이뤄온 위대한 성취를 생각하면 어렵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업이라 믿습니다.

그 희망찬 내일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언제나 청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25.09.24.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해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날레나 배어복(Annalena Baerbock) 제80차 총회의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과 사무총장님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모색해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설립된 해 식민 지배에서 해방됐고, 유엔의 도움으로 분단의 상흔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업화를 일궈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참혹한 전쟁과 재난 속에서 우주의 무게만큼 고귀한 생명들의 희망을 되살릴 때마다 그 치열한 연대의 중심에서 유엔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유엔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기 위해 애썼고, 어린이들의 삶을 피워낼 교육과 백신을 제공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일어선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당당한 유엔 회원국으로 거듭났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각국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80년 전

국제사회의 결의와 염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전히 2억 8,000만 명의 인구가 극심한 기아 상태에 놓여 있고, 우크라이나·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무력 분쟁, 이미 현실이 된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엔을 창설한 선각자들의 지혜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길에 답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정부'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민주주의의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방법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이곳 유엔에 모여 함께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총장이 제시한 '유엔80 이니셔티브'가 이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유엔의 진화와 발전을 이뤄낼 비전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고, 효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 여러분!

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표방하는 자유와 인권,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삶의 모



2025.09.24.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든 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주도해 갈 것입니다.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연대와 상생, 협력이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깊은 절망만큼 높은 희망을 꿈꾸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열정으로 지금의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유엔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쟁의 참화를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이 유엔 창립으로 이어져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지켜냈던 것처럼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더 협력하고, 더 신뢰하고, 더 굳게 손잡아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 우리 민주 대한민국이 앞서가겠습니다.

평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평화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은 인간의 존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상이 평화가 없다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선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수호한 우리의 용사들이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리적인 요소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시대, 우리는 이제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과 맞서야 합니다.

AI 시대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닌다면 기술 악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안보리 의장으로서 주재하는 공개토의 자리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다음 달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가 주도할 기술혁신은 기후 위기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중요하고 또 새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난 80년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젖히고, 인류의 존망이 걸린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 온 유엔의 노력에 세계 각국이 화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에 동참할 것입니다. 2028년 칠레와 공동 개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실질적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 지구적 과제에 적극 대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인류 공동의 약속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10년 전 유엔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수립한 이래 국제사회는 빈곤 퇴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개발 재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가장 취약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글로벌 개발 거버넌스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동시에 재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도약한 대한민국의 사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함께 미완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 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우리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국민이 상호 협력하며 전 지구적인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는 미래가 꿈 같은 장밋빛 전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열망이 우리 안에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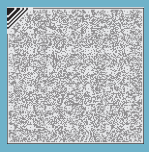
아 있는 한 언제든 연대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넘어 K-컬처가 전 세계인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K-컬처의 성공과 확산은 모든 배경의 차이를 넘어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상생, 배려의 에너지를 모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어낸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인류의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시련이 있어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기에 인류는 한 단계씩 성장하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오색빛 응원봉처럼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함께 들어주십시오.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새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 10

제77주년 국군의 날

2025.10.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지키는 '국군의 심장'. 이 계룡대에서 우리 군의 위용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멀리 항일독립투쟁에 나섰던 독립군과 광복군에서부터, 온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신 순국 장병, 참전용사와 예비역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오고 있는 주한미군 여러분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은 77번째 국군의 날이지만 우리 군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군과 광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유린당한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고, 마침내 연합

군과 함께 광복을 이뤄내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과 광복군의 피어린 투쟁이 없었다면 빛나는 광복 80주년의 역사와 그동안 이룬 눈부신 성취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권을 되찾고,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구국의 정신이 바로 우리 국군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고귀한 사명이라는 점을 단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군 장병 여러분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신뢰도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됩니다. 군이 하루속히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국군으로 거듭나도록,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가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도록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저마다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찬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발전도 경제성장도 모두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나라에 힘이 없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의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첨단 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되리라 예측되는 만큼 병력 숫자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로는 부족합니다.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바로 그 해법입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첨단 항공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서 우리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확고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



2025.10.01.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입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지형과 분단 상황에 따른 실전 경험이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받는 K-방산을 이끈 토대가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을 기회로 삼아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군 장병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

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모든 장병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놓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이 충만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강력한 국방력과 확고한 대비태세 아래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최강 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예전부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의 근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인 명예도 바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SNS

노인의 날

2025.10.02.

오늘 10월 2일은 제29회 노인의 날입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부단히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SNS

국제사회와 함께 입양인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5.10.02.

올해 10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앞서 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함께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결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써왔습니다. 6·25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입양된 아동이 공식 기록만으로도 17만여 명에 달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2020년대에도 한 해 평균 100명 이상의 아동이 낯선 해외로 떠나야 했습니다. 따뜻한 입양가족을 만난 이들도 있었지만 일부 입양기관의 무책임과 방조로 평생을 고통 속에 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 혼란을 떠올리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간 고통받은 해외입양인과 가족, 그리고 원가정에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책임지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국가가 입양인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입양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 중심적 입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도울 실효적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입양인과 입양가정, 그리고 원가정이 서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SNS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위해

2025.10.07.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봅니다.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SNS

위대한 한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원천입니다

2025.10.09.

오늘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글 한글이 탄생한 지 579돌이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입니다.

특히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87개 국가, 252개 세종학당에서 우리 글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한글을 배우려는 수강 대기자도 1만 2,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소설을 읽고,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 울고 웃는 '문화 강국 대한민

국의 꿈’이 한글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께서는 “한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류가 세계 속에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느냐도 우리 문화의 원천인 한글 사랑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오늘부터 다음 주 18일(토)까지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한글 한마당’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국민께서 참석해 한글의 소중함을 함께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기념사

2025.10.17.

푸른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해양 수도 부산에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벅찬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선수들을 맞이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17개 시·도 및 재외한인단체 선수단과 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쏟아낼 우리 선수 여러분을 직접 보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늘 그랬듯이 이미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계를 넘어 인내와 열정의 구슬땀을 흘려온 여러분 모두가 이미 승자들입니다.

그런 만큼 선수단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연대하는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만방에 떨치며 우리 국민께 큰 희망과 감동의 울림을 선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설레는 마음으로 꿈을 품고 고국을 찾아 주신 해외 18개국의 재외한인단체 선수들께는 우리 국민과 함께 특별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넓



2025.10.17.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히고 계신 선수단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우리 국민 모두에게 깊은 자긍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로 106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우리 역사에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육대회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계기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 및 문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2의 도시, 제2의 수도 부산의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께서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온 나라가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애써 주신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NS

제77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2025.10.19.

오늘은 여수·순천 10·19사건 제77주기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일대에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살아남은 이들과 유가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을 강요받으며 슬픔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유족회와 정치권, 각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

2025.10.2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 여러분!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 해외 각국의 경찰 대표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서 이 자리의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합니다. 밤낮도 휴일도 없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뒷받침해 주신 경찰 가족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80년간 일궈낸 이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여러분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서 우리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 없이 시민들을 구해낸 영웅들이 있습니다. 휴가 중에도 날카로운 직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말없이 끊어진 신고 전화 한 통조차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 위에 섰던 피해자를 살려낸 영웅들도 있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도, 범죄 검거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경찰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사명감이 만들어 낸 소중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하게 묻고 계십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



2025.10.21.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늑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마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강화하고 수사·치료·재활이 연

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 권력과 맞선 故 이준규 경무관과 故 안병하 치안감이 바로 그들입니다.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입니다.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14만 경찰관 여러분!

이 중요한 과업이 일방적 희생과 헌신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치밀하고 빈틈없는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전 세계에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경찰 가족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입니다. 고맙습니다.

SNS

어느덧 11년이 흘렀습니다

2025.10.26.

시대의 음악인이자 양심이었던 故 신해철 님은 청년들에게는 '생각하는 힘'을, 기성세대에게는 '성찰할 용기'를 일깨워준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가 세상에 던진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문제, 모두가 외면하던 불완전한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며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용기를 택하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음악으로 고립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상처 입은 이들과 걸음을 맞추며 함께 걸었습니다.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정치가 아닌 예술이 바로 치유의 힘이다." 지난달 별세한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의 말도 떠오릅니다.

그가 꿈꾸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그의 삶이 전하는 메시지는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리라 믿습니다.

SNS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2025.10.29.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도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즐거워야 할 축제가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습니다.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개회사

2025.10.31.

우리 정상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PEC 회원 경제지도자 여러분, 초청에 응해 주신 UAE의 칼리드 왕세자님, 천년 고도 경주에 오신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 APEC 경제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습니다. 원년 회원으로서 APEC의 발전을 이끌었고, 1991년 'APEC 서울선언'을 통해 APEC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는 아·태지역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즉 '부산 로드맵'이 채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의 효



2025.10.31. 제32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REPUBLIC OF KOREA
APEC 2025
KOREA
UNITED STATES
THAILAND
VIET NAM
NEW ZEA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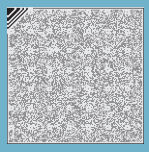


2025.10.31. APEC 정상회의 세션 1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핵심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지도자 여러분, 이틀간 논의가 펼쳐질 이곳의 이름은 ‘화백컨벤션센터’입니다. 고대 신라왕국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백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입니다.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 11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2025.11.01.

아·태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보·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 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지역 국가 간 무역·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 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

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2025.11.01.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 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NS 공동번영의 '아시아·태평양'을 향해 APEC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5.11.01.

지난 1년 쉼 없이 달려온 '2025 APEC'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태지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 중차대한 시기, 대한민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국제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APEC의 역량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를 모아 도전을 극복하고,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겠다는 APEC 회원들의 흔들림 없는 소망을 증명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경주선언'에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협력의 의지가 오롯이 담겼습니다. 'APEC AI 이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통해선 AI와 인구 문제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할 비전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위 3건의 문서들은 번영과 평화의 공동체를 바라는 회원들의 강렬한 열망과 의지를 구현할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십시오. 치열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일궈낸 성취들이 멈



2025.11.01.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인계식

추지 않고 빛을 발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난 1년간의 여정을 함께 해준 APEC 회원들과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경제 지도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과 경주시민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APEC이 성공적 결실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2025.11.0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 질서의 재편과 인공



2025.11.04.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

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

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000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SNS

제63주년 소방의 날

2025.11.09.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도,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잔해 속에서도 'First in, Last out'의 사명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여러분 덕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의 비범한 희생이 있기에 가능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을 지킬 때 국가는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 지원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생명과 건강을 지킬 제도적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고귀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소방공무원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부디 어떠한 재난 현장에서도 늘 무사히 복귀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장의 최전선에서 순직하신 모든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SNS

LOL 월드 챔피언십 대회 3연패

2025.11.10.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대회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한 T1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e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내며, e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단단한 팀워크와 한계를 뛰어넘은 정신력, 승리를 향한 투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e스포츠를 비롯한 문화산업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T1의 위대한 질주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역사와 전설을 써 내려갈 선수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마지막 5세트까지 멋진 승부를 보여준 KT 롤스터 선수단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SNS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

2025.11.12.

매년 이맘때쯤엔 찬 바람이 불어 쌀쌀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유독 날이 따뜻해 다행스러운 마음부터 먼저 듭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못지않게 애타는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혹여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님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의 꿈을 응원합니다.

SNS

꺼지지 않는 불꽃,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2025.11.13.

1970년 11월 13일,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쳤던 절규는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근본적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헌신은 죽은 근로기준법에 생명을 불어넣고, 노동자 권리 보장이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임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노동운동이 확산된 거대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5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위험한 현장, 불안한 고용,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내는 수많은 전태일이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이름은 달라졌어도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산업재해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너무도 오래되고 거대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당한 현실을 마주해 봤기에,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세대에 물려줄 사회는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한자 가득한 근로기준법을 해석해줄 '학생 친구'를 간절히 갈망했던 전태일과 같은 노동자들을 위해 소년공 이재명이 든든한 '대통령 친구'가 되겠습니다.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 믿습니다.

G20 정상회의 제1세션 발언

2025.11.22.

먼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라마포사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요람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의가 최초로 열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서 함께 잘사는 길로 가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 자원을 집중 배분해서 부를 창출하고, 또 부채 비율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여 총생산 증가와 장기적 부채 비율 감소를 도모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도국 경제는 과도한 부채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이 제한되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개도국들이 당면한 이 문제를 해



2025.11.22. G20 정상회의 제1세션

결하기 위해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앙골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적이 타당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이행 등 G20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서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은 내년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해온 '투자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 협정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도국 성장을 위해서 개발 협력의 효과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부산글로벌파트너십포럼'을 통해 개발효과성 제고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자개발은행 개혁 로드맵 평가·보고 체계 채택'도 주도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자개발은행 개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개도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G20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가 기회를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을 추구하여 소외되는 국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20 정상회의 제2세션 발언

2025.11.22.

의장님, 감사합니다. 금번 세션의 주제는 각각 다른 주제 같지만 상호 연결된 하나의 체계적 위험 요인입니다.

'유엔재해위험경감국'이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복합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격을 적절히 흡수하고 복원력을 강화하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또 새로운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중장기 기후탄력적 발전경로를 확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정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둘째로, 재난 위험 대응은 예방 중심, 복원력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올해 G20 재난위험경감 각료회의가 다중재난 조기경보체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재난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홍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등 재난위험 저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G20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재난 대응 복원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복원력 높은 인프라 시스템에 적극 투자해야 합


G20 SOU



2025.11.22. G20 정상회의 단체사진

니다.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성장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 중입니다. 해상풍력 클러스터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확대하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햇빛소득·바람소득' 공유모델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식량 체제 복원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한국은 유엔세계식량계획과 식량원조사업을 17개국으로 확대하고,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에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처럼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습니다."

G20는 2008년 금융 위기, 2020년 팬데믹 위기에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기후·재난·에너지·식량의 복합 위기 또한 그때와 같은 책임감 있는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한 국가의 회복력은 전 세계의 회복력으로 이어집니다. 위험을 사전에 낮추고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글로벌 체계를 함께 구축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20 정상회의 제3세션 발언

2025.11.23.

존경하는 의장님, 감사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기회인 동시에 또 커다란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할 미래가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이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G20가 'AI for Africa'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도 모든 인류가 인공지능(AI)의 혜택을 고루 향유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이런 정신을 반영한 'APEC AI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광물 보유국과 수요국이 혜택을 공유하는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해 G20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G20 핵심광물 프레임워크'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광물 공급국과 수요국의 필요에 맞는 호혜적인 광물 협력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아프리

카 핵심광물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호혜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 혁신과 핵심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는 포용적인 기회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G20가 '넬슨 만델라 베이 목표'와 '브리즈번-이테쿠이니 목표'를 채택한 점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은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인공지능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배움터'를 구축하고, 청년 맞춤형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가나와 탄자니아에서 여성·청소년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을 지원하고, 르완다에 소프트웨어 특성화고를 건립한 것처럼 앞으로도 아프리카 내 여성과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이 되어준 G20를 함께 설계한 나라로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년인 2028년 다시 의장직을 맡아 여정을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G20가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의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라마포사 대통령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NS

배드민턴 황제 안세영 선수의 시즌 10승을 축하합니다

2025.11.24.

세계 최초 배드민턴 여자 단식 한 시즌 10승을 달성한 안세영 선수는 자신이 세운 기존 기록을 뛰어넘으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입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 경기력과 집중력으로 '적수가 없다.'는 찬사를 받으며 세계 최강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투지와 열정, 도전과 눈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세계 무대에서 더욱 큰 활약을 펼쳐 주리라 믿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월드 투어 파이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상 없이 건강하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도장깨기 선수'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안세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응원을 전합니다.

SNS

G20 정상회의 결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2025.11.24.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의는 20개 회원국과 20여 개의 초청국, 20개 이상의 국제·지역기구가 함께 모여 우리의 공동번영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경제 체질 변화와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 개도국 개발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 모두 함께 잘사는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난,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식량 안보와 같은 위협에 맞서기 위한 통합적 전략을 공유하고,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햇빛·바람소득, K-라이스벨트 사업 등 선도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AI 기본사회 구축,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인공지능 역량 강화 등 포용적 성장전략을 논의하며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인도, 브라질, 중국, 일본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2025.11.24. G20 정상과의 만남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했으며, 믹타 의장국으로서 회원국 회동을 성사시켜 다자주의 강화와 국제 협력 촉진이라는 믹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무엇보다 3년 후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G7 정상회의와 유엔총회, APEC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G20 정상회의까지 취임 이후 숨 가쁘게 이어진 모든 외교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NS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25.11.25.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오신 선생님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 주셨습니다.

“연기는 살아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며 인간 삶의 본질을 전하는 통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연기에 대한 철학과 배우로서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서의 인품은 수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은 예술인이자 국민배우였던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합니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

SNS

자랑스러운 우리의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5.11.27.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새벽 1시 13분 발사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발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고흥 지역주민분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성공을 바탕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SNS

104세 독립운동가께서 부르신 ‘고향의 봄’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2025.11.28.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최고령 생존 독립유공자이신 이하전 애국지사님의 104세 생신을 맞아 인편을 통해 축전과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귀가 어두우신 가운데에도 축전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기쁜 마음에 ‘고향의 봄’을 부르셨다 합니다. 머나먼 미국 캘리포니아 땅에서 조국을 떠올리며 노래하시는 지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한없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사님께서는 1938년 비밀결사 모임 조직을 시작으로 일본 유학 시절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시고, 광복 후 미국으로 건너가 흥사단과 광복회에 봉사하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산증인이십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자유,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지사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선열들께서 걸어오신 자랑스러운 독립투쟁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기록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하전 애국지사님, 부디 오래도록 건강과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5 12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2025.12.0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오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

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친위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 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

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12.03.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앞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2025.12.08.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성장의 회복'입니다. 수도권 중심 일극 체제는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뤄냈지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가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틀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자 국가 전체가 튼튼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동안 균형성장,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애써 주고 계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SNS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 ‘김대중’이 걸어온 길 위에서

2025.12.10.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삶에 세계가 보낸 찬사이자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통령님이 계시기에 가능했습니다. IMF 국난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IT 고속도로를 구축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 ‘팔길이 원칙’으로 문화·예술을 존중하고 장려한 혜안 덕에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이자 문화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로 민주주의의 토대가 한층 단단해졌기에 지난겨울 내란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 모였던 수많은 ‘김대중들’의 용기와 연대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낸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역시 대통령께서 걸어오신 길 위에 있습니다.

치열한 ‘서생의 문제의식’과 실용적인 ‘상인의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의 통찰을 나침반 삼아 어떤 난관과 시련에도 오직 주권자이신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라 걷겠습니다.

SNS

나눔과 사랑을 전하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12.16.

“등 따습고 배부른 것이 최고”라는 말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그 기본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 여러분과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나눔을 이어가는 민간 단체, 수많은 후원자 여러분의 따뜻함 덕분에 우리 사회는 여전히 사람 사는 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계산보다 연대로 함께해 주시는 고귀한 마음이 대한민국을 단단히 지탱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기쁘게 나눠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정부 또한 국민 한 분 한 분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까지 세심히 살피며,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NS

광주 군공항 이전, 대화와 연대로 마침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2025.12.17.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우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드디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현안이었기에 오늘의 합의는 더욱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무안군이 함께한 6자 협의체는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난제를 풀어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답을 찾아낸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번 합의는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을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충돌이 아닌 상생으로 전환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 나간 이번 경험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김산 무안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긴 시간 인내하며 지혜를 모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더불어 전합니다.

고질적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 미팅이 이렇게 값진 결실로 이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오늘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SNS

대한민국이 세계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2025.12.21.

오늘 하루 중국 항저우 땅에 애국가가 세 번이나 울려 퍼졌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난달 세계 최초 배드민턴 여자 단식 한 시즌 10승을 달성한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의 우승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남녀 단식 통틀어 사상 최다 우승 기록 타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 시즌 60경기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단식 부문 역대 최고 승률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선수도 11승을 거두며 37년 만에 남자 복식 한 시즌 최다 우승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서승재 선수는 태국 마스터스 우승까지 포함하면 시즌 개인 통산 12승으로, 세계 배드민턴 역사상 한 시즌 최다 개인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자 복식 이소희, 백하나 선수는 일본을 꺾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배드민턴이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연속 우승을 달성한 것은 무려 26년 만이라고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에 경이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셀 수 없는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껏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안세영, 서승재, 김원호 선수의 위대한 기록 달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소희, 백하나 선수에게도 무한한 축하와 박수를 전합니다.

SNS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와 헌신에 머리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2025.12.22.

전국의 어르신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오신 지회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작부터 모시고 싶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해가 바뀌기 전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해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경제, 민생, 정치, 외교, 국격 어느 하나 망가지지 않은 게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또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적 자긍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K-팝, K-푸드를 비롯한 K-컬처에 세계인이 열광했고, 오색빛깔 응원봉으로 국민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금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올 한 해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도약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집과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과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꽃피웠고, 권위주의를 넘어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시는 곳,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히 하되, 그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전국 7만여 개의 경로당과 300만 회원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어르신 단체입니다. 그간 전국 각지에서 노인복지 발전과 세대 간 통합을 위해서 쉼 없이 노력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곳이 없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동짓날이기도 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며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SNS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2025.12.24.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그중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습니다.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습니다.

학생, 군 복무 중인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모든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합니다.

SNS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떠올리며

2025.12.25.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 고통받고 아픈 이들과 평생을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분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시길, 사랑하는 이들과 눈을 마주하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쉼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는 귀한 성탄이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025.12.25. 명동대성당 성탄 미사 참례

SNS

모두가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12.29.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슬픔을 안긴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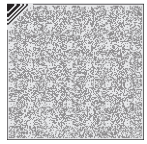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12·29여객기 참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 여러분을 기



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는, 작은 위험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6 01

2026 신년사

2026.01.01.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GPU 26만 장, 150조 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 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

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

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넷째,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매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 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26.01.01. 2026 신년 인사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SNS

‘국민배우’ 안성기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2026.01.05.

대한민국 영화사와 문화예술 전반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안성기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영화를 꿈으로, 연기를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연기는 곧 삶이었고, 그 삶은 수많은 이들의 위로와 기쁨, 그리고 성찰의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관객과 시청자에게 믿음을 주고 싶다.”는 소망처럼 ‘믿고 보는 배우’로,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진정성 있게 그려낸 배우로, 이웃 같은 친근한 배우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69년의 연기 인생 동안 170편이 넘는 작품에 출연하며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았던 선생님의 뜨거운 열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주신 선생님의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감동과 울림으로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벌써 그립습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26 신년 기자회견

2026.01.2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닙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이자 불굴의 저력으로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다시 세운 나라로서, 발걸음 하나하나가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으로 극복해냈고, 민주주의 회복이 다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2026.01.21.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서 민주주의를 잠식합니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장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라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입니다.

첫째,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입니다.

둘째,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스타트업·벤처기업들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인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치로 이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제도를 고치고, 또 새로 마련하겠습니다.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경쟁력까지 높이겠습니다.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K-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 인류 보편의 공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세계를 다시 하나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9조 6,000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합니다.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차근차근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발걸음을 계속 내딛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강국으로 성큼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굴곡진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냈던 우리 국민의 위대한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합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6.01.25.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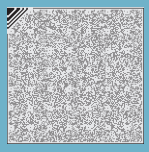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6 02

SNS

K-팝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간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2026.02.02.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Golden>이 그래미 어워즈 시상식에서 비주얼 미디어 부문 최우수 작곡상을 받으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K-팝 작곡가 또는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음악인이 꿈꾸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에 뜨거운 축하를 전합니다.

비록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블랙핑크 로제 님과 캣츠아이 정윤채 님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아티스트들이 더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무대 뒤에서 땀 흘리는 제작진과 관계자분들이 계셔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SNS

미래 과학자들이 과감히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2026.02.05.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누고,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견고히 다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했던 나라는 늘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여긴 국가는 쇠퇴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하며 인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 과학기술력이야말로 국력의 제1지표입니다. 과학자들의 꿈과 희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정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에 더해 국가과학자 제도까지 도입해 평생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명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러니 정부를 믿고 거침없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성공의 자산이 되어 마음껏 혁신의 길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2026.02.05.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



미래 과학자들이 과감히 도전하고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기념사

2026.02.0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착공합니다. 이 뜻깊은 착공식을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경북 김천에서 이곳 경남 거제까지 잇는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지난 60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중단되면서 이 지역은 너무나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타지를 가려면 오랜 시간 차를 타야 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먼 도시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동네에 기차역 하나 없는 설움이 시간이 지나며 지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끝내 지역의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부내륙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된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계에 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의 새로운 문을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시기에 자원과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기회를 한쪽으로 몰아서 소위 몰빵하는,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기업으로는 특정 대기업들에게, 그리고 특정 계층에게 모든 기회를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발전의 과실을 흘러내리게 해서 모두가 나누는 소위 낙수효과로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일극 체제,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맞이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몰리면서 자원과 기회가 비효율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서울로 모든 것이 모여서 서울은 집값이 폭등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변하고, 지방은 사람들이 사라져서 소멸하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 이 나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균형성장, 균형발전을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한 모든 결실은 도민 여러분께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남해안의 다도해와 내륙의 수려한 명산이 하나로 연결되며 남해안의 관광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고, 이는 곧 지역 상권의 부활과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주와 사천의 우주·항공 산업, 거제의 조선·해양 산업은 내륙의 물류 거점과 만나 경쟁력을 더하고, 철도가 지나는 곳마다 들어서는 산업단지들은 경북과 경남 곳곳을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오늘 착공식이 열리는 이곳은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 대첩의 승리를 일궈내신 견내량이라는 곳입니다. 과거의 견내량이 나라를 지키는 최전선이었다면 오



2026.02.06.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늘의 견내량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의 첫 삽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의 새 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해서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공사 과정 중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SNS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그리고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합니다

2026.02.13.

기쁜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최가온 선수의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과 임종언 선수의 쇼트트랙 남자 1,000m 동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스노보드의 새 역사를 쓴 최가온 선수의 투혼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스노보드는 2018년 첫 올림픽 메달을 기점으로 알파인에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로 영역을 점차 넓혀 왔습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이 하프파이프라는 상징적인 프리스타일 종목에서도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2차 시기에서의 아쉬움에도 요동하지 않고 3차 시기에서 꿈의 점수 90점을 기록하며 끝내 금메달을 거머쥔 최가온 선수의 모습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자신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은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임종언 선수의 동메달 또한 매우 뜻깊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1,000m는 오랜 세월 대한민국을 ‘절대 강국’으로 이끌어온 상징적인 종목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선정한 10대 신예로 주목받아온 임종언 선수의 이번 성과는 세대교체 속

에서도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과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밝습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두 신예 선수의 앞날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경기에 나설 모든 선수들에게도 힘찬 격려를 전합니다.

SNS

쇼트트랙 강국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을 축하합니다

2026.02.19.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대표팀에게 깊은 축하를 전합니다.

쇼트트랙 계주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승패를 좌우하는 팀 스포츠입니다. 최민정·김길리·노도희·심석희·이소연 선수 각각의 뛰어난 기량 위에 오랜 시간 다져온 팀워크가 더해져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경쟁력을 세계에 당당히 증명해 냈습니다.

이번 금메달은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치러진 10번의 결승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뤄낸 일곱 번째 우승입니다. '쇼트트랙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입증한 쾌거입니다. 특히 최민정 선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통산 6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최다 메달리스트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개인 통산 네 번째 금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개인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우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신 감독님과 코치진, 관계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의 노력이 모여 마침내 금빛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의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대표팀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2026.02.20.

자랑스러운 신임 국군 장교 558명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고된 교육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훌륭한 국군 인재 양성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온 각 군의 교수진과 훈육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해·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군'이 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입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근간인 국제 규범은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자도생, 약육강식이 바로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냉엄한 국제질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신임 장교 여러분의 눈은 세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에 안주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계정세를 이해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갑시다.

병력의 숫자만을 앞세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첨단혁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사람 없는 전쟁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이미 전장에 사이버전과 전자기전이 도입되고, 드론 등 무인 기기들이 배치되며 새로운 무기체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장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



2026.02.20.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합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립시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自强)'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납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

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시길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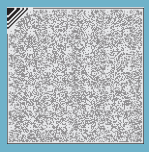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국군'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을 헌법적 가치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신임 장교 여러분!

안중근 의사께서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장교의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명예로운 길입니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는 주역이 될 신임 장교 여러분의 임관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6 03

제107주년 3·1절 기념사

2026.03.01.

존경하는 대한국민과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107년 전 오늘 대한독립 만세의 힘찬 함성이 세계만방을 향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은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계층과 신분의 차이도,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하나였고, 좌와 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신의주에서, 그야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가 만세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선열께서는 일제의 탄압에 국내에서는 실력 항쟁으로, 해외에서는 무장 투쟁과 외교 투쟁으로 맞섰고, 그 정신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갔습니다. 작은 차이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쳤기에 3·1혁명은 마침내 광복의 환희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107주년 3·1절을 맞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애국선열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생존해 계신 네 분의 독립유공자와 유가족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의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신 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에 밝혔던 것처럼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각별히 살필 것입니다. 효창공원 일대를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폭넓은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대대로 기리겠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은 올해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으로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자조적인 말은 사라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존경받으며, 공동체를 배반한 행위는 준엄하게 심판받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나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혁명이 일어났던 한 세기 전의 세계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권피탈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후에야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되었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

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은 '3·1독립선언'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독립을 맞이하면 "수천 년 갈고 닦아온 인도적 정신으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출 것"이라고 장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꿈꿨고,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함께 연대하며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대동 세상을 꿈꿨습니다.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1919년의 우리는 힘없는 식민지 백성의 신세였지만, 2026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과 세상을 바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께서는 해방 이후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했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의 빛을 밝혀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한'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영향력 7위에 달하는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평화를 확산하며 선열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의 핏속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3·1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주창하셨고, 우리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인도할 밝은 빛이 분명합니다.



2026.03.01.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열께서 간절하게 바랐던 평화와 공존의 꿈을 지금, 여기 한반도에서부터 실현해 나갑시다.

적대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으로 불신이 아니라 신뢰의 토대 위에서 함께 성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3·1혁명의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적대와 대결은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역사의 가르침을 결코 외면하지 맙시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이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정부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벌어진 작년 무인기 침투 사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행위이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이곳 한반도에서 긴장과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유관국 협력을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측도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는 만큼 조속하게 대화의 장으

로 나와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평화를 염원했던 선열들의 만세 함성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 공동의 다짐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평화와 공영을 추구했던 3·1정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일 양국은 굴곡진 역사를 함께해 왔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고, 고통받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날 양국은 치유되지 않은 고통과 상처를 안고 선린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위해 국교 정상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은 외교,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앞마당을 함께 쓰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엄혹한 국제 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외교를 통해 과거를 직시하며 현재의 과제를 함께 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셔틀 외교를 지속하며 양국 국민께서 관계 발전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일본 정부도 호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일찍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동양평화론'을 통해 한·중·일 3개국 간의 협력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임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화합의 의의를 되새기며 저는 올해 초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여 한·중·일 3국이 공통의 접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세계의 평화로 이어가고자 했던 선열들의 바람대로 화합과 번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200만 대한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선열들께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하나로 통합하여 독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께서 함께 힘을 모아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한다면, 선열들께서 꿈꾸던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서 목숨을 바쳐 가며 바라셨던 선진 민주 모범국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문화가 꽃피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갑시다. 3·1혁명의 정신으로 평화와 민주, 상생과 공영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선열들께서 바라 마지않던 그 광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천만 관객 돌파

2026.03.07.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2024년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뜻깊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한 영화를 찾았다는 것은 작품이 전하는 진심이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며 깊은 울림을 이끌어냈다는 뜻이겠지요. 소중한 공감의 장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과 배우, 그리고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애써 주신 모든 스태프 여러분께 축하와 더불어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 영화는 창작자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관객들의 사랑 속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천만 관객 돌파 역시 영화인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이야기의 힘, 그리고 이를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만든 값진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세상과 만나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창작의 자유가 살아 숨 쉬고, 문화가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영화의 새로운 도전과 빛나는 미래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SNS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

2026.03.08.

3월 8일 오늘은 세계여성의날입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여성의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20년대 나혜석·박인덕 선생 등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열며 비로소 공식적인 기념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그리하여 누

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여성의날 조직위원회(IWD)가 정한 2026년 세계여성의날 주제는 '베풀수록 커진다(#GiveToGain)'입니다. 우리가 함께 베풀며 가꾸어갈 성평등의 결실이 여성과 남성, 세대와 계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삶에 골고루 스며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SNS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6.03.08.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 8년 만에 값진 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12.5km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윤지 선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우승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이자 한국 여성 선수로서 동계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거둔 최초의 금메달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김윤지 선수는 여름에는 수영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며 계절과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과 열정이 마침내 이번 겨울 설원 위에서 금빛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첫 패럴림픽 출전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김윤지 선수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네 개의 종목에서도 멋진 경기를 펼칠 김윤지 선수를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금메달이 김윤지 선수의 삶에 오래도록 큰 자긍심으로 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스마일리'라는 별명처럼 환한 미소로 당당하고 즐거운 도전을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사

2026.03.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원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3·15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국민주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와 목숨을 바쳐 마침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워냈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난 정의의 함성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영구집권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독재정권은 온갖 부정·불법, 불의를 일삼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불의에 저항한 시민과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국민을 향해 실탄 사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 많은 중학생 아들, 멋진 캠퍼스 생활을 떠올리며 학업에 열중했을 모범생 친구, 사랑하는 어머니와 단란한 일상을 보내던 열아홉 살의 공장 노동자, 그리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외동딸의 아버지까지 그날의 희생자들은 우리 곁에서 살아가던 평범하고 소박한 이웃들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어제 같은 오늘을 보냈어야 할 소중한



2026.03.15.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

사람들은 끝내 '1960년 3월 16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또한 부상과 고문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잔혹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주권자의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탄보다 불의한 내 나라의 현실을 더 두려워했고, 복부를 관통하는 쇠붙이만큼이나 짓밟힌 자유와 정의에 더 아파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뜨겁고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해 보였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넘어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면면히 이어진 3·15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3·15의거 유공자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5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흔들리고,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평범한 민초들, 시민들은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 단호하고 또 현명하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 의지와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에 깊이 새겨져 있는 수많은 열사들의 발자취가 그 증거입니다.

비록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도 민초들의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서 2024년 12월 3일 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은 내란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섰던 것처럼 2024년 12월 겨울밤 현재의 대한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견고한 연대와 높은 주권 의식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당당하게 알렸습니다.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일각의 영구집권 야욕을 국민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봄을 만들어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공동번영의 근간에 우리 국민이 보여주신 불굴의 저력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묵묵한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고, 민주주의의 빛나는 모범을 당당하게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친 민주유공자들의 정신이 우리 사회 전반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다음 세대에 더 귀중한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죽을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15의거, 4·19혁명에 참여하신 유공자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 포상하고, 기록하고, 또 예우하겠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고 화합과 상생, 배려의 정신은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민주유공자들과 열사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모진 고난 앞에서도 새 나라의 꿈을 잃지 않았던 이 땅의 모든 선열의 헌신에 제대로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NS

다섯 번째 메달을 거머쥔 김윤지 선수, 축하합니다

2026.03.15.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km 인터벌 스타트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윤지 선수,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김윤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출전한 6개 중 5개 종목에서 메달을 목에 걸며 동계와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무려 여섯 개의 경기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론 걱정도 컸습니다. 이제는 잠시나마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돌보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윤지 선수가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투혼은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더 큰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완주한 김윤지 선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에 더 큰 영광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SNS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카데미 2관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6.03.16.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계 영화계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 거둔 뜻깊은 성과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문화가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케이팝의 역동적 에너지와 한국적 감성, 그리고 독창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새로운 즐거움을 전하며 우리 문화의 지평을 한층 넓혀 주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증명해 주신 매기 강 감독님과 모든 제작진, 그리고 <Golden>의 작곡가, 프로듀서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한국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자부심을 안겨주셨습니다.

감독님의 수상 소감처럼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세계의 중심에서 빛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 다음 세대의 창작자들은 더 큰 꿈을, 더 넓은 무대에서, 더 빠르게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전해 주신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펼쳐갈 새로운 창작의 여

정도 꾸준히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축사

2026.03.17.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 여러분의 임용을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축하합니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귀한 자녀를 길러 주신 가족 여러분,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합니다.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 여러분!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

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과 치안 환경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하여 날로 복잡해지고, 그만큼 경찰을 향한 우리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재적소에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우리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왼쪽 가슴에 빛나는 흉장은 국민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막중한 책임이자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우리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들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2026.03.17.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신임 경찰 여러분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축사

2026.03.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세계 각국의 주한대사와 기업인 여러분!

마침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킬 우리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배치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전투기는 우리가 반세기 넘게 꿈꿔온 자주국방의 뜨거운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

냈습니다. 본인들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그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KF-21의 개발과 제작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산업, 핵심기술 연구를 담당한 국방과학연구소, 수많은 국내 방산기업과 연구기관, 공군 장병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진과 기술진의 곁에서 묵묵히 그 긴 시간을 함께 감내해 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KF-21의 성공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유수의 방산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새 동력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낮은 유지비용, 기체 플랫폼의 높은 확장성 등으로 이미 1호기 출고 전부터 세계 각국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KF-21의 성공을 대한민국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삼을 것입니다.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입증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방위산업 강국, 항공산업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첨단 항공 엔진과 소재·부품 개발 등에 신속하게 착수하여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협력국에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기술과 개발 과정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여 K-방산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6.03.25.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SNS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감사드립니다

2026.03.25.

지난 한·필리핀 정상회담 당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수감 중이던 박모 씨에 대한 임시 범죄인 인도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께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적극적 검토의 뜻을 밝히셨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 끝에 오늘 해당 인물의 국내 송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떠한 범죄도 국경을 넘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가 구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9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결단력으로 협조해 주신 마르코스 대통령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2026.03.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해 수호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고개를 들어 푸르른 서해를 바라볼 때마다 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의 숨결이 함께 밀려옵니다. 포화와 혼돈 속에서도 주저함이 없던 그대들의 눈동자는 조국의 밤하늘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되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의 상처와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참전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굳건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입니다.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해양 경찰들도 국민의 삶과 나라의 경제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습니다. 영웅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넓은 바다 위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그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됩니다. 숭고한 헌신을 감내한 이들을 충분히 예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어느 누가 국가공동체를 위해 감히 앞서 나서겠습니까.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단장(斷腸)의 아픔을 겪어야 했던 유가족들이 생존 걱정까지 떠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다친 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은 마땅하고 또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에 2,000곳으로 확



2026.03.27.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대하여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보답하면 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

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습니다.

오늘,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다짐합니다.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영웅들이 흘린 피와 땀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해 수호 영웅들의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SNS

한국 문학의 지평을 넓혀 주시는 한강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03.27.

한강 작가님의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소설 부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작품이 이 상의 소설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수상작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4·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인간의 존엄과 기억, 서사로 승화시킨 작품입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시적으로 풀어내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다시 한번 대한민국 문학의 깊이와 품격을 전 세계에 증명해 주신 한강 작가님, 참 자랑스럽습니다.

작가님께서 열어주신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따라 앞으로 우리 예술인들 또한 더 넓은 무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리라 기대합니다.

“나는 여전히 우리들 안에 깜빡이는 빛이 존재한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그 빛을 굳건히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빛을 들고,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를 잊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건네주고 계신 한강 작가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SNS

고인의 숭고한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2026.03.29.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는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유린된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셨으며, 참혹한 고통을 딛고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결코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고, 다음 세대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겨주셨습니다.

고인의 숭고한 뜻과 용기를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평안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SNS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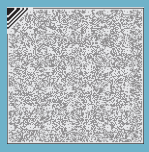
2026.03.30.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며 이웃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층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비롯한 정책적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모든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6 04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2026.04.02.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000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

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400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

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000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000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2026.04.02.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000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온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

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SNS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2026.04.03.

제주4·3사건 78주년을 맞아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동백꽃의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제주도민들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아려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 지난 80년의 역사는 성장과 번영으로 빛나는 시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암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겪은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제주4·3은 그런 고민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께서는 끔찍한 국가폭력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받았지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4·3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끝까지 노력하신 유족과 시민사회, 그리고 힘을 보태 주신 도민 여러분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정의 실현과 진실 규명을 위해 헌신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국가가 저지른 큰

잘못을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우리는 역사 앞에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며,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SNS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2026.04.05.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한복음 20:19)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안 속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평강과 은혜가 온 나라와 국민 위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축사

2026.04.05.

존경하는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회장 이영훈 목사님, 위원장 엄진용 목사님과 김일엽 목사님, 그리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신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감독님을 비롯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개최되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우리 사회에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되었고, 나라가 어려운 때에는 함께 헤쳐 나갈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늘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 평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73개 교단과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를 지탱해 오던 평화와 번영의 질서는 약화되고, 연대와 화합이 아닌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우리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6.04.0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처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더욱 두텁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

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는 힘의 원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앞길을 환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담은 부활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을 축하드리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교회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함께함이 저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NS

제81회 식목일을 맞이하며

2026.04.05.

전쟁과 가난으로 황폐했던 우리의 산과 들은 국민 여러분의 손길로 되살아났습니다. 한 그루 한 그루 정성 다해 심은 나무들이 모여 전국 곳곳에 80억 그루가 넘게 자라났고, 그 덕에 산천은 다시 푸른 생명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관저와 청와대에도 새 생명을 심었습니다. 체리나무와 복사나무입니다. 아직은 작은 묘목이지만 따스한 봄 햇살이 더해지면 국민 여러분의 정성으로 키워낸 나무들처럼 머지않아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나 시련을 넘어 희망을 일궈온 굳건한 저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혹독한 겨울 지나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의 순리처럼 이 땅에도 다시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NS

복합위기 시대, 대화와 협력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열쇠입니다

2026.04.10.

오늘 민주노총 위원장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와 협력만이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유일한 해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부터 AI와 산업 대전환의 파고까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복합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면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고민과 노력을 존중하며, 열린 자세로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의견 하나하나 역시 꼼꼼하게 살피며, 국민 삶을 바꿀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SNS

규제합리화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2026.04.15.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걷어내는 일, '규제합리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관료 중심으로 산업 정책을 기획하고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술 경쟁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합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규제 강화냐 폐지냐'는 이분법 자체가 이미 낡은 논쟁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모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장 잠재력을 회복할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합리화가 대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있는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추도사

2026.04.16.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4·16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

또다시 4월 16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말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의 과오와 그 무거운 교훈을 한시도 잊지 않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



2026.04.16.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

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는 나라, 국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리운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여전히 아프고 힘든 일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사

2026.04.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구집권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았고, 급기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항거의 외침은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에게로 이어지며 3월 15일 마산에서 터져 온 나라 저항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 4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쟁의 물결이 철옹성 같던 독재 정권을 마침내 무너뜨렸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와 내 나라를 지켜낸 4·19혁명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2026.04.19.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습니다.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다섯 분을 포함하여 총 일흔 분을 새롭게 포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분들에게 시급한 의료지원 또한 더욱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 이제 전 세계의 유산이 된 4·19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할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온 것입니다.

4·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합니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

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도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걱정했던 대학생, 내 몸의 상처만큼 짓밟힌 민주주의의 상흔에 아파했던 고등학생, 부상자들을 도우며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을 보여준 간호사까지 총칼마저 이겨낸 통합과 상생, 배려의 정신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들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합니다.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한 명의 목숨이나 백 명의 목숨이나 다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NS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나라를 향해

2026.04.20.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계신 장애인 여러분께 깊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동과 평범한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대한 결심과 간절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눈앞에 놓인 작은 문턱 하나가 넘기 어려운 금지선이 될 수 있기에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저 역시 산재로 후천적 장애를 얻은 몸이기에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이 모여 많은 정책적 변화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등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상 속의 여러 불편과 제약,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익을 높이는 일은 단지 복지를 늘리는 것을 넘어 모든 시민의 삶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서 장애인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일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돌봄과 교육, 문화, 일자리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가 삶의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SNS

하노이의 저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2026.04.23.

하노이의 저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호안끼엠 호수와 구시가지 골목을 걸으며 베트남 국민 여러분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격식 있는 일정이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건네주신 환한 미소와 인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가 깊은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며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P.S. 베트남에서는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실패하지 않는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더군요. 덕분에 맛있는 저녁 식사를 즐기고 갑니다.



2026.04.23.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 축사

2026.04.2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자랑스러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손 여러분!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숨결이 깃든 이곳 현충사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례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덕수이씨 충무공파 이종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영웅이십니다. 장군께서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셨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부터 거북선을 건조하고 실전훈련을 실시하며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셨습니다. 전쟁 중에는 치밀한 전략과 탁월한 지휘력으로 세계 해전사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승리의 신화를 쓰셨습니다.

만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다면, 장군의 탁월한 혜안과 지휘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구국의 영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 속에서 연전연승의 신화를 써 내려갈



2026.04.28.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이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준엄한 소명의식과 애민정신으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절망 속에서도 군사와 백성을 하나로 모아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상대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풍전등화의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또한 그 시절의 파고만큼이나 높고 거셉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낳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에서부터 나라를 구해냈던 것처럼 지금의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입니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

속력은 필수입니다. 제아무리 큰 위기도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불과 13척의 배로 열 배가 훨씬 넘는 왜군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장군부터 병사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드시 바꿔낼 것입니다.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생의 구조를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과 함께 지금의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부강하고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NS

산업재해노동자의 날, 추모를 넘어 책임과 다짐의 시간으로

2026.0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입니다.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입니다.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노사의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끓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2026 05

2026 노동절 기념사

2026.05.0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이름 노동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3년 만에 제 이름을 '다시 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노동계 원로 여러분과 또 경제 단체 대표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들과 또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까지 모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일터를 지키고 계신 노동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생산의 주체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며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신 이 땅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노동에 종사합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노동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노동을 통해 삶을 바꾸며, 노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노동은 한 사람의 일상을 지탱하며 가족의 오늘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내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늦은 밤 때로는 동트는 새벽이 되어서야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하루를 마감하고는 했습니다.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소년 '노동자'였고, 지금도 그 노동자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이라는 제 이름을 찾은 오늘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조금 전 우리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종과 세대, 성별은 비록 달라도 각자의 목소리에는 같은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꿈은 소년공 이재명이 느꼈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며 나의 노동이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대가 달라져도, 상황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으로 노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화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동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은 산업의 판을 뒤흔들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역시 국가경쟁력의 기준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위기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생산으로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일터 밖에서는 소비자로서 경제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경제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라 하더라도 함께 사는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전환의 과정에서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며,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보살피겠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과 노동자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상적인 나라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현장에서도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권리의 크기가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습니다.

셋째,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존중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습니다.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존중은 단지 배려나 시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입니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2026.05.01. 2026 노동절 기념식

존경하는 대한국민 여러분!

오늘은 노동절 기념식과 함께 청계광장 거리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오랜 시간 준비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그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리거나 적대해서도 안됩니다. 대화의 첫걸음은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상생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오늘 노동절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화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이야기를 일터의 변화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으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과 함께, 노동자와 함께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104번째 어린이날을 맞이하며

2026.05.05.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엿한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 세상을 배워가던 어린이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그 시절의 마음을 떠올려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설레고 들뜨며, 사소한 일에도 울고 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서 더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한계보다 가능성을 먼저 바라보던 날들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뿐 결코 부족하거나 미숙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지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참 많은 것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며 충분히 기다려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훗날 더 넓은 마음과 깊은 배려를 지닌 어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이를 단지 보호의 대상이나 귀여운 존재로만 여기지 않고, 존엄과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 존중하겠다 다짐합니다. 어린이의 품위를 지켜 주는 품위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고, 1년 365일 매일이 어린이날처럼 느껴질 수 있는 사



2026.05.05. 어린이날 청와대 초청 행사

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해 주기만을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축사

2026.05.08.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가정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저도 비로소 실감하는 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시간들.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압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부모는 국가와 공동체가 져야 할 무거운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 짐을 조금씩 덜어드릴수록, 우리 부모님들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을 향해 한 발씩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이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평생을 헌신한 어머님·아버님들이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부모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2026.05.08.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여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을 거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모두 함께 책임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님·아버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최고의 효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입니다. 만나

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그 젊은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습니다.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SNS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05.12.

2022년부터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해외에 도피해 있던 운영진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운영자급 15명 중 9명을 특정해 8명을 검거했으며, 이용자 204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최고 관리자와 잔존 세력,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해외로 숨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명백한 오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성착취물 제작·유통·소비에 가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디지털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입니다. 수요가 존재하는 한 범죄는 반복됩니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SNS

새마을운동중앙회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2026.05.14.

산업화 시대 '전 국민 잘 살기'를 목표로 큰 성과를 이룬 새마을운동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같이합니다.

1980년 창립 이후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대한민국 새단장, 차량 2부제 시행 등 변함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실용과 통합을 우선해야 할 시기에 찾아뵙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모래만으로는 그저 모래 더미에 불과하지만 자갈과 시멘트, 물이 더해지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듯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어떤 역경이든 능히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근대화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이어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SNS

현재를 가르치며 미래를 만들고 계신 위대한 선생님들께

2026.05.15.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 있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처럼 스승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며,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성장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스승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스승님께서 해주신 한마디 말씀이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스승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비단 저만이 아닌 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실에서의 하루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표현이 서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야 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고민과 상처를 마주하며 함께 아파하고 눈물짓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책임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교실에서 땀 흘리고 계실 전국의 모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

2026.05.1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마흔여섯 번째 맞이하는 오월입니다.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잔혹한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틀어막던 무도한 독재정권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 눈을 감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고, 숨기려 할수록 오월 정신은 더 넓게 더 멀리 퍼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오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 자들을 구했습니다. 산 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2026.05.18.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19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오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혀 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

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19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오월 영령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세 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을 넘어 대한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성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습니다. 벽면 곳곳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들이 그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오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5·18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故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월의 소년은, 등록신청을 대신할 직계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5·18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 잠재력의 약화, 불평등의 심화, 국제질서의 격변, 지방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격랑의 파고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잔인한 폭압 속에서도 1980년 오월의 광주는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었고, 금남로에는 사랑과 연대의 물결이 출렁거리지 않았

습니까. 외로움의 한복판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마지막 온기를 모아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습니다. 시민이 만들어낸 공존과 배려, 평화의 광장에서 광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5·18정신이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월의 기억과 5·18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자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5·18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등, 통합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SNS

故 이종욱 박사님 서거 20주기를 맞아

2026.05.20.

故 이종욱 박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을 맡아 세계 보건의 최전선에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의왕시 성 라자로 마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재임하시며 소아마비, 결핵, 에이즈 등 인류가 직면한 치명적 질병에 맞서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 퇴치 글로벌 캠페인을 통해 백신 보급 확대와 국제 협력 체계 강화를 주도하며 전 세계 소아마비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류 보건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거 20주기를 맞아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기간 중 박사님의 업적과 헌신을 기리는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이라는 박사님의 신념과 실천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박사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 보건 증진에 책임 있게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SNS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2026.05.21.

참 오래 걸렸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특히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께서 직업 선택과 문화·교육 향유, 사법

절차 참여를 비롯한 모든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누구나 제약과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첫걸음을 비로소 내딛습니다.

SNS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사

2026.05.23.

봉하마을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양숙 여사님, 유족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어느덧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시고 맞이하는 열일곱 번째 5월입니다. 봉하의 봄은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지만, 이곳을 찾는 저의 마음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왔고, 야당 대표로 왔고,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임명해 주신 대통령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께서 떠나신 후 이 땅에는 수많은 '노무현'들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추모하는 마음을 넘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뜻을 이어가려 합니다.

반칙과 특권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사회,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 출신과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등 돌리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 주는 따뜻한 공동체, 적어도 먹고사는 문제로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대한민국.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에 걸쳐 만들고자 하셨던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님의 못다 이룬 꿈, 국민주권정부가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는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곳 하나 소외되는 곳 없이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분단의 선을 평화의 길로 바꾸며 10·4남북공동선언을 이뤄내신 대통령님의 뜻을 이어받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당신께서 그러하셨듯 정치적 유불리보다 옳고 그름을 언제나 먼저 묻겠습니다. 타협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진심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의 유일한 척도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대통령님의 부재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재를 통해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없는, 그러나 당신으로 가득한 '노무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든다며 그렇게 불리길 바라셨던 분.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껏 자신을 낮추시던 분. 대통령 욕을 하며 국민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웃으시던 분.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내려오신 뒤에도 "대통령님, 나오세요."라는 국민의 부름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당에 나와 대화를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해 주셨던 분.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던,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었던 '사람 노무현'을 우리 모두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권력보다 국민의 힘이 더 세다. 민주주의는 몇몇 지도자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연대로 지켜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굳건한 믿음을 우리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2026.05.23.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

대통령님, 당신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이 나라와 국민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대통령님의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십시오.

SNS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2026.05.24.

길 위에서 태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에서 고락을 함께해 왔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품어 안았습니다.

특히 모든 중생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귀한 말씀을 등불로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전국을 밝힌 연꽃 등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빛이 되어 주길 소망하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드립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

2026.05.24.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대자대비함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 뜻깊은 봉축법요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랜 세월 우리 삶 속에 함께해 왔고, 국가적 위기와 슬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가난, 재난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언제나 사찰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렇기에 우리 국민은 삶에 지칠 때마다 사찰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생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



2026.05.24.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요합니다.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부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등불로 삼겠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 가르침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원융회통(圓融會通)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하나 된 힘으로 국민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전국을 밝히는 연꽃 등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잇는 희망의 빛이 되어 대한민국 우리 사회를 더욱 따사한 공동체로 밝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자애와 지혜가 온 세상에 더 넓고 더 깊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태고종) 축사

2026.05.24.

반갑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의 사부대중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봉축하기 위해 한국불교태고종의 유서 깊은 도량, 이 청련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불자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른 변화에, 사회적 갈등에 서로의 마음을 살필 여유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봉축 표어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모든 중생들이 서로를 배척하기보다 이해하고, 대립하기보다 화합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세상이 평화롭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자비심을, 불안 대신 평안을 채워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상생과 통합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화합하는 '화쟁'의 정신,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다

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된 뜻이라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에 국민의 안녕과 공동체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상처 입은 마음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오월,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불하십시오.

SNS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05.26.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제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안보 환경 또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국가의 원칙과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자 핵심 토대입니다.

미래 안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력, 산업 현장의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더 강한 국방,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 역량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회복 등 안보 주권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의 주체로 확고한 위상을 갖추도록 중장기적 로드맵 또한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겠습니다. 오늘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가 대한민국 국방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사

2026.05.27.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해양수산인 여러분!

‘제31회 바다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다의 날은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개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을 기념하여 부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해운 강국, 역대 최대 수출을 넘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무역 강국, 이제는 세계가 가장 먼저 찾는 글로벌 방산 강국, 세계를 향해 힘차게 출범한 ‘대한민국호’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 바다였습니다.

이 거대한 뱃길을 최일선에서 열었던 주역들은 바로 우리 선원들과 해양수산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외국 상선과 원양어선 위에서 목숨을 걸고 벌어들인 외화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힘인 동시에 국가 경제를 일으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처럼 우리 선원들과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묵묵한 발자취 역시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에 당당히 새겨져야 할 위대한 업적입니다.

1996년 김영삼정부의 해양수산부 출범은 해운과 항만, 조선과 해양산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우리 대한민국을 해양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이제 바다는 단순한 물류

와 산업의 공간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미래를 좌우하는 최전선이 됐습니다. 글로벌 해양 통상 질서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 경제의 핏줄인 바다의 안전과 주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을 잇는 중심축이 되어 주변국의 자유로운 항행과 열린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입니다. 나아가 모두가 바다를 함께 누리고, 바다에서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해양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는 든든한 토대가 바로 오랜 시간 축적해온 우리 해운·항만의 저력입니다. 정부는 해운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갈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주춤했던 글로벌 해운 공급망 회복에 속도를 내어 우리 손으로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해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해운과 조선의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해상보험과 선박금융, 해운 서비스 산업도 폭넓게 육성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기초체력을 든든하게 보강하겠습니다.

유능한 선원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원양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한국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바닷길을 넘어 가장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해운산업의 미래 북극항로 시대의 주역들 아니겠습니까.

또한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항로를 개척하고 선제적인 선박 투자를 통해 오늘의 해운 강국을 일궈낸 해운 경영인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는 선배 해운인들의 도전 정신과 청년 해양인들의 패기를 하나로 모아 우리 해운산업이 세계의 바다를 호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6.05.27.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

바다를 통해 세계를 잇고, 평화의 길을 열고, 공동번영의 터전을 만드는 진정한 해양 강국의 비전을 바로 이곳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에서 실현할 것입니다. 동남권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부 해양수도권'으로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힘차게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남부 해양수도권'을 육성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동시에 해양 강국의 비전을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직결시키는 균형성장전략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남권은 세계 최고의 해양 거점으로 도약할 지정학적 잠재력과 역량을 품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거대한 관문,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한 종합 산업의 거점,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든든한 심장, 동남권의 독보적인 역량이 바다와 함께 하나로 연결될 때 '남부 해양수도권'의 가치는 활짝 꽃피고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압도적인 잠재력을 바탕으로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을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새로운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항만과 공항,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남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해양 관광벨트를 구축해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해양 경제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나아가 이곳 부산에 본격적인 해양수산부 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겠습니다.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이미 약속드렸던 동남권 투자 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이후에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한 부산 지역 대

학들의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또 수도권에서 오는 학생들의 비중도 늘었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맞겠지요? 현실로 드러나는 큰 변화라고 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변화에 새로운, 그리고 큰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바다를 선택한 청년 여러분의 기대에 정부가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여 국가 필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진정한 해양 강국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이 길에 전국의 모든 해양수산인 여러분과 동남권 시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SNS

우원식 의장님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6.05.28.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2년은 우리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이었고, 의장님께서는 역사의 거센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12·3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보여주신 의장님의 담대하고 강단 있는 리더십은 무너질 뻔한 헌정 질서를 지켜낸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다시 확인했고, '민주주의 최악의 위기'를 '민주주의가 가장 빛난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국정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데에도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과 의장님의 헌신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대화와 조정, 타협의 가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의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 오신 의장님의 행보는 여야를 넘어 우리 정치권에 귀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의장님의 오랜 신념처럼 앞으로도 진짜 민주주의를 향한 길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SNS

꼭 투표합시다

2026.05.30.

투표는 민주주의의 생명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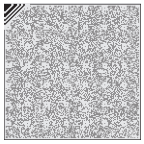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표 포기는 중립이 아니라 내 삶과 공동체를 해치는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설문집 1

발행처	대한민국 청와대
제작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2026년 10월
발간등록번호	11-1371000-100215-01
ISBN	979-11-6357-802-4




대한민국
청와대